

# 연극·설치·영화...다양한 시각예술로 풀어낸 '시간'

## '광주 센서리움: 미디어아트'

내달 1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다양한 미디어 방식 차용 작품들 김일권 등 작가 7명·작품 17점 공감각 입각한 미래적 경험 선사

'시간'을 시각예술로 풀어낸 미디어전시가 지난 1일부터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 센서리움: 미디어아트'전은 무등현대미술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무등현대 아트 밸리 프로젝트(Art Valley Project)'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디어 방식을 차용한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다.

전시 현장은 김일권 전남대학교 교수, 고동연 강원국제트리엔날레 감독이 공동 기획한 영상작업과 설치 작품이 수놓고 디지털매체와 장르적 작업을 아울러 이미지의 다양한 변환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한 인터랙티브 작업이 펼쳐져 있다.



김일권 작 '고장난자연'.



오창근 작 '평범한 모니터 미디어파일'.

무등현대미술관 제공

센서리움(sensorium)은 뇌의 피질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감각의 중추를 가리킨다. 인간의 뇌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서로 다른 감각을 인지하는 부위가 각지로 퍼져 있어 최대한 서로 다른 감각적 경험을 연결해 왔다.

이번 전시는 21세기 동시에 예술가들이 시각적 정보의 파장을 움직임, 시간적 추이, 리듬감, 촉각 등의 비시각적인 정보와 결합하고 전이시키는 과정에 주목한 뒤 공감각적 미디어아트를 통한 시각 예술로 풀어냈다. 전체 구성은 시간이라는

요소에 집중하는 △센서리움: 우주적 시간 △센상: 감각하다 △센서리움: 미래의 시간 등 세 파트로 이뤄졌다.

먼저 '센서리움: 우주적 시간'에서는 한승구 작가와 안종연 작가가 표현한 영겁의 시간을 만날 수 있고 '센상: 감각하다'에서는 김혜란 작가, 오창근 작가가 찰나의 순간을 다룬 가상세계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브제, 타이포가 시시각각 변화되고 독립적인 리얼리티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담는다.

'센서리움: 미래의 시간'은 심승욱 작

가, 송은성 작가의 다양한 감각이 수용된 작품으로 채워졌다. 시간적 추이를 관객이 인지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직시한다.

김일권 작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하며 생태예술의 비완벽성을 수렴함과 동시에 인류의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는 물리적 시간을 뛰어넘어 추상적 개념에 입각한 미래적 시간을 보여주는 전시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무등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최근 미디어아트 전시는 다양한 매체들과 접점을 이루면서 정적인 예술이 아닌 연극, 설치, 영화, 음악영화, 그래픽 인터페이스 등과 어떻게 혼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관객은 센서리움을 통해 다양한 감각기관이 공존하는 뇌피질이 활성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센서리움: 미디어아트'전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문의는 무등현대미술관(062-223-6677)으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ACC-서아시아, 문화예술 협력 방안 모색

### 7일 '서아시아 도시탐색 포럼' 카타르 등 국내외 관계자 참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7일 ACC 국제회의실에서 서아시아와의 문화예술협력의 장을 여는 '2024 서아시아 도시탐색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과 서아시아 문화예술교류 방향성 모색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 기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과 서아시아 예술적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 △문화예술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공동 프로젝트 및 예술가 교류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기획과 지속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발표와 협력 논의, 문화예술 투어, 국내외 관계자 간 네트워킹 파티 등 다채롭게 운영된다.

주요 연사로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아트 자질의 자코모 피에트로 람보리지오, 아랍에미리트바르질예술재단의 레미 흄스 주니어 큐레이터, 아랍에미

리트 크리스티스의 리다 뭉니 중동 아프리카 회장, 카타르 뮤지엄즈의 이사 알 시라위 국제전시 팀장이 참석한다.

김복기 아트인컬처 대표가 포럼의 사회를 맡아 서아시아와의 문화교류 사례와 질의응답을 깊이 있게 짚어보고 ACC 학예연구사들이 다양한 해외 문화교류 프로젝트 성과와 협력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포럼 종료 후에는 현대미술의 세계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ACC 주요 전시 관람 투어, 레지던시 작가 워크숍 방문과 네트워킹 파티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이번 포럼은 한국과 서아시아 양측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상호 이해하고,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 전시 및 교류 프로그램 신설 등 지속 가능한 협력을 선도하고,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문화예술 기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만경창과 푸른 물에'

### 9일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2024 토요일상설 '국악이 좋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만경창과 푸른 물에'를 오는 9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진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 '축제'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인생2', 민요 협연 '태평가', '벚노래+자진벚노래',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2024금당', 장새남 협주곡 '넬라판타지아', '열풍', 마지막으로 국악관현악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벚노래'까지 여덟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42)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 'ACC 찾아가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 전복서 개최

###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 미니' 오늘 정읍·9일 남원서 체험 기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5일과 9일 각각 전북 정읍과 남원에서 ACC 찾아가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 미니(mini)'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어린이날 개최하는 '하우편'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ACC의 대표 축제다. 이번 '찾아가는 하우편 미니'는 취약계층 심리방역 사업의 하나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등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복지 실현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ACC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이동형 무대 차량을 활용한 공연과 아시아 전통놀이마당 등 문화예술체험 10종,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전북 지역 어린이들과 가족 관람객들에게 문화예술 참여·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ACC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지난 5월 ACC에서 열린 '하우편10' 축제에 참여해 기관의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ACC재단 제공**

서 열린 '하우편10' 축제에 참여해 각 기관의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전북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ACC의 인기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화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쉽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박찬 기자**

## 광주문화재단, 올해 마지막 '목요콘서트'

### 7일·2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금관5중주 무대·성악 공연 등

광주문화재단의 올해 마지막 '목요콘서트' 무대가 오는 7일과 21일 2회에 걸쳐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목요콘서트는 △17회차 줄리브라스사운드의 금관5중주 무대 '해설과 함께 하는 줄리브라스사운드' △18회차 공연 단체 질러의 '노래 입은 우리나라' 성악공연으로 구성됐다. 21일 올해 마지막 공연은 질러(Ziller)

7일 열리는 17회차 공연은 웅장하고 화려함의 상징인 금관악기로 구성된 클래식, 팝,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매력적인 화음으로 연주한다.

줄리브라스사운드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금관5중주로 운영되는 단체로, 지난 2018년 창단돼 금관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색과 화려함, 웅장한 사운드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출연진은 트럼펫 오창훈·하민중, 호른 오은영, 트럼본 홍성혁, 튜바 장현성이다.

21일 올해 마지막 공연은 질러(Ziller)

의 '노래 입은 우리나라'를 주제로 192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의 전통적인 가곡의 감성과 현대적인 특징을 표현한 감동적인 성악 무대로 펼쳐질 예정이다.

신진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질러(Ziller) 공연팀은 소프라노 서혜원·최효리·박찬미·신지유·최시운, 메조소프라노 김혜원, 피아노 박주은, 해설 김진희 출연해 클래식의 정통성을 지켜가며 다채로운 음악 장르로 새로운 감동을 전달한다.

목요콘서트 입장료는 5000원이며,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 전달된다. 관람 예약 및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062-670-7942)으로 하면 된다. **박찬 기자**